

‘소통합’ 통합민주당 내우외환

범여권 대통합 급물살·DJ 소통합 반대

‘시·도지사 등 광주 8인 회동’ 대통합 촉구

통합민주당이 내우외환에 시달리면서 갈수록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외부적으로는 범여권 대통합의 흐름이 급류를 타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당 지도부의 자체 변화를 요구하는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

우선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에 이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범여권 진영 합류로 교차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범여권 대통합은 점차 급류를 타고 있다.

여기서 한나라당의 겹겹 공방이 가열되면서 40%대를 넘었던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면서 범여권 대통합만 이뤄진다면 오는 12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정국 흐름이 범여권 대통합 방향으로 강하게 형성됨에 따라 중도통합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합당이 ‘소통합’으로 인식되면서 통합민주당의 단계적 대통합 주장도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다.

고 있다. 때문에 당초 통합민주당으로 합류할 것으로 예상됐던 열린우리당 탈당과 의원들은 일제히 발을 빼며 대통합 진영으로 속속 합류하고 있다.

여기에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자·간접적인 대통합 메시지와 광주·전남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일괄타결식 대통합 여론도 통합민주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민주당 내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 김효석·신종식·이낙연·채일병 의원, 정균환 전 의원, 김영진 광주시당위원장 등은 1일 오후 광주에서 회동을 갖고 ‘당 지도부가 누구도 배제

하지 않은 대통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들은 자리에서 “최근 합당 후 광주·전남지역에서 소통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중도개혁통합신당에서 합류한 의원들과의 연쇄 모임 등을 통해 우선 당내에서 대통합을 추진하는 세력을 결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특히 박상천 공동대표의 ‘후보 단일화론’에 대통합의 흐름에 적절치 않다는 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중도개혁통합신당 출신 현역의원 일부도 김한길 공동대표의 일방적인 행보에 상당한 불만을 표시하

고 있다. 김 대표가 범여권 대통합에 헌신하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고려한 행보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주자 연설회의 참석 등 보다 전략적인 대통합 움직임에 나서지 않는다면 상당한 내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경선제 도입 등 대선 일정을 감안한다면 이달 내에 대통합에 대한 제정과간의 합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일괄타결식 범여권 대통합을 통한 단일후보 선출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통합민주당에 보다 유연한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통합민주당이 보다 전략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내부 갈등은 물론 대통합 정국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8인 광주회동

통합민주당 내 대통합파인 김영진 광주시당위원장, 박광태 광주시장, 정균환 전 의원, 이낙연·신종식 의원, 박준영 전남지사, 김효석·채일병 의원(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등은 1일 오후 광주시내 모 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향후 행보에 대해 논의했다.

/위작기자 jrwi@kwangju.co.kr

통합민주당 나눠먹기 당직 인선

대통합파 인사 철저 배제…사무총장 고재득씨

중도통합민주당의 주요 당직 인선이 범여권 대통합에 대비하기 보다는 철저한 기득권 쟁기기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통합민주당은 1일 주요 당직 인선 발표를 통해 12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10명을 우선 임명하고 2명은 대통합을 위해 공석으로 뒀다고 밝혔다.

10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구 민주당 쪽으로 최인기 의원, 이낙연 의원, 김경

재 전 의원, 김성순 전 의원, 신낙균 전 의원 등 5명이, 구 중도개혁통합신당 쪽으로는 서제관, 유필우, 염동연, 조일현, 이근식 의원 등 5명이 임명됐다.

특히, 구 민주당 쪽 당직 배분에서 친 박상천 대표 그룹 원외인사들이 대거 발탁된 반면 대통합파로 분류되는 원외인사들과 협의의원들은 철저히 배제됐다는 평가다.

대통합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최고 위원회 선임된 이낙연 의원은 이날

신당의 5:5 기준에 의해 주요 당직이 배분된 반면 대통합을 위해서는 최고 위원회 두 자리만 비워두는데 그쳤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주요 당직 인사는 통합민주당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당의 구조로 통합민주당이 주호 정국에서 범여권 대통합의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고위원직 고사 입장을 몇 차례 밝힌 바 있다”며 “당이 대통합에 대한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언제라도 최고위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민주당 관계자는 “지역적 안배 등을 따지다 보니 협의의원들이 주요 당직을 맡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주요 당직 인사는 통합민주당의 현 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러한 당의 구조로 통합민주당이 주호 정국에서 범여권 대통합의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비지원수강생모집

최고의 교수진 직강!! 실무중심의 취업이 가장 빠른 교육

주택관리사·공인중개사

모집과정

▶공인중개사 2차월~퇴 개강일 : 7/2~8/31 사원일 : 10월 28일
▶주택관리사 2차월~퇴 개강일 : 7/2~8/31 사원일 : 10월 21일
▶주택관리사 2차월~퇴 개강일 : 7/7~9/1

모집대상

▶훈련료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전실 예정인 분
▶상시 근로수당 30인 미만 회사에 근무 중 이전 분 40세 이상이신 분
▶근로자기금이 1년 이하 이전 분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③기타사항

▶고용보험 기입 책임인 선착순 정원제 모집

④수료후

100~80% 학급

⑤점수

▶수강절차 :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 컴퓨터 과정 -

⑥모집과정

▶정보기기 과정 원우도XP, 인터넷활용, 한글문서편집 활용, 유형리티활용
▶정보기기 과정 앤드로이드, 파워포인트, 컴퓨터활용

⑦모집대상

▶고용보험 기입 책임인 사업장에 근무중인 자격근로자

⑧기타사항

▶수료후 100% 학급

⑨점수

▶수강절차 : 훈련상담→훈련수강신청서 작성→훈련기관에 제출수강

⑩수업시간

▶월수금 19: 00~21: 00(기초) ▶화목 19: 00~21: 00(기초)

⑪노동부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⑫현대직업전문학교

동부경찰서 옆 224-4560, 232-1088

= 여름 방학 대특강!! 국가직 5만여명(5년간 모집) =

7·9 금 공무원 특강

행	교	세	관	법	검	교	보	특	전	소	토	건
정	정	무	세	원	찰	정	호	지	산	방	독	축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직
시	※전남행정직: 10월 13일 7급 21명 9급 154명 예정											
률	※전남교육행정직: 7월 2일 주·야간 모집 (현재 예약 접수)											
내	※전북2차 8급행정직 100명 9월 8일 사원											

개강

7월 2일 주·야간 모집

(현재 예약 접수)

= 無等은 선배 公務員들이 입증하는 높은 합격률이 있습니다. =

무등고시학원

www.mdgol.co.kr 222-4560

광주 동부경찰서 뒤

(증평초교 후문)

개강: 7월 2일

교강: 7월 2일